

2022. 12. 26.(월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2년 12월 2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한성백제박물관(전시기획과)

한성백제박물관장	유병하	2152-5802
전시기획과장	권순철	2152-5910
담당자	지숙화	2152-5912
관련 누리집 (메뉴)	https://baekjemuseum.seoul.go.kr/	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,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 전시개최 업무협약 체결

- 한성백제박물관-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, 문화유산 조사·연구·전시 업무 상호 협력 합의
- 12.23.(금) 협약 체결 후 협력 통한 양질의 연구성과 및 문화유산 선보이길 기대
- 내년 9월, 한성백제박물관에서 “백제의 제철 기술”을 주제로 특별전시회 개최 예정

- 한성백제박물관(관장 유병하)은 12월 23일(금),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(소장 문재범)와 특별전시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12월 23일(금), 한성백제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, 문재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고대 한반도의 한성백제와 중원지역 간 교류를 연구하고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.
- 이번 업무 협약은 백제 한성기 중원의 제철 유적을 소개하는 특별전시회 공동 개최와 함께, 서울의 선사·고대를 연구하는 ‘한성백제박물관’과 중원

문화를 조사·연구하는 ‘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’의 학술교류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.

-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은 ▲소장 문화재의 조사·연구 협력, ▲학술자료의 공개, ▲특별전시회 공동 개최, ▲학술정보의 교류·자문 등이다.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그동안 양 기관이 축적한 학술·소장자료 정보를 공유하고, 공동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며 그 성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.

- 한성백제박물관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내년 9월에 공동으로 개최할 전시회에서는, 현재까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하여 소장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‘칠금동·탑평리·가신리·문성리 유적’과 관련한 최신 백제 유물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“이번 업무 협약은 백제 한성기의 주요 철기 생산지와 백제의 제철 유적을 소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”라며, “이를 통해 많은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양질의 연구성과와 문화유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: 업무 협약 개요 1부.

〈업무협약 개요〉

- 행사명: 한성백제박물관-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업무협약(MOU)
- 일 시: 2022. 12. 23.(금), 오전 11시
- 장 소: 한성백제박물관 회의실
- 참석자: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, 문재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외 기관 관계자
- 내 용: 특별전시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
 - ▶ 소장 문화재의 조사·연구·협력
 - ▶ 조사자료·출판물·사진 등 소장자료의 공개
 - ▶ 상호 협의한 전시의 공동 개최
 - ▶ 학술정보 교류·자문 및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참고사진

